

K-Pop 댄스 뮤직의 정체성을 위한 연구: 리듬을 중심으로*

이 봉 재

1. 서론
2. K-Pop 댄스 뮤직의 특징
 - 1) 음악적 특성
 - 2) 춤의 특성
 - 3) 거론된 쟁점: 정체성의 부재
3. K-Pop의 정체성
 - 1) 차별화: 싸이 〈강남스타일〉
 - 2) 혼종화: 싸이 〈행오버〉
 - 3) 정체성: 한국 리듬의 현대화 〈사물놀이〉
4. 결론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2S1A5B5A07037433).

개 요

K-Pop이 신한류의 주역으로 급부상하면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K-Pop은 주로 U-Tube 등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세계 팬들은 K-Pop의 음악과 춤 그리고 환상적인 공연에 매료되고 있다.

K-Pop 댄스 음악의 최근 성공은 한국 음악 산업과 연예 기획사들이 지난 10년간 끊임없이 노력한 결실이다. 그러나 K-Pop을 이윤을 창출하는 시장으로만 평가하는 상업적 담론들은 K-Pop이 성숙한 문화로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국내의 열악한 시장 구조와 K-Pop 콘텐츠의 독창성과 다양성 부족 그리고 모호한 정체성 등으로 K-Pop의 미래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댄스 음악에서 리듬은 춤과는 불가분한 관계를 맺으며, 선율의 생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K-Pop의 정체성 구현을 위해 최근 히트곡의 리듬과 한국 전통 리듬을 고찰하여 K-Pop 댄스 음악의 정체성을 창출할 방안을 제시한다.

주제어: 케이 팝, 댄스 음악, 독창성, 정체성, 리듬, 단순화

1. 서론

2000년대 이후 K-Pop 열풍은 전 지구적 형태로 확산하며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¹⁾ K-Pop이 세계 최대 음반 시장, 미국에서 특유의 상품성을 부각한 것처럼, 지구촌 곳곳에 한국의 음악 문화를 알리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²⁾

반면 K-Pop에 대한 국내 담론은, 긍정적 시각과 더불어, 우려가 혼재되어 있다. K-Pop은 문화적으로 생성된 새로운 팝의 한 형태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동시에 그로 인한 독창성의 결여가 K-Pop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했다는 비난도 함께 받는다.³⁾

최근 K-Pop에 관련된 국내 연구가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면서, K-Pop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⁴⁾ 그러나 음악의 기술

- 1) “Bringing K-Pop to the west,” *The New York Times*, <http://dfs.kr/news/2012/3/5/the-new-york-times-global-bringing-k-pop-to-the-west.html> (2012. 3. 5); 윤정인, “신한류 문화로서 K-Pop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2013).
- 2) “Gangnam Style music video ‘broke’ YouTube view limit,” *BBC News Asia*, <http://www.bbc.com/news/world-asia-30288542> (2014. 12. 4); 이현진, “K-Pop의 성장 지속화 방안: 가수 싸이(Psy) 성공 요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세종대학교, 2013).
- 3) Cho Hae-Joang, “Reading the ‘Korean Wave’ as a Sign of Global Shift,” *Korean Journal* 45/4 (Winter, 2005), 164.
- 4) 임준철은 한국의 문화적 요인들을 분석하고, 타문화와의 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낼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이를 어떻게 문화교류의 본원적인 가치와 연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는 맥락에서 문화융합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글로벌/글로벌 시대의 문화융합과 미디어콘텐츠 역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2012); 박현주는 문화의 국제적 흐름에 반응하여 생산된 대중문화물에 한국성 혹은 한국적 문화 정체성 개념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주목하고, 초국적 문화의 수용과 혼성적 문화실천에 대한 분석과 그 정치적 의미를 고찰한다. “글로벌 대중문화물의 한국적 변용과 탈식민주의적 문화 정체성에 대한 연구,” 『언론과 사회』14/3 (2006), 35-72; 양재영은 K-Pop이 글로벌-로컬, 혼종성-순혈적 민족주의, 탈국적성-국지성이라는 상반된 문화적 개념과 사회경제적 범주들이 공존하며 뒤섞여 있다고 말하면서 생산과 유통에서 소비에 이르는 K-Pop의 상호 연관되고

적인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적절한 예를 제시한 논문이나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음악의 기술적 부분을 고찰하여 K-Pop 댄스 뮤직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2장에서 'K-Pop 댄스 뮤직'의 음악과 춤의 특징 그리고 이와 관련된 쟁점을 다룬다. 3장은 'K-Pop의 정체성'에서는 싸이(PSY)의 <강남스타일> (2012)과 최근 음원이 출시된 <행오버> (2014)를 분석한다. 이들 음악에 나타난 서구 음악과 한국 음악의 혼합 방법에서 전통 리듬을 현대화하고 단순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K-Pop 댄스 뮤직에서 정체성을 재고하는 방안을 알아본다.

2. K-Pop 댄스 뮤직의 특징

1) 음악적 특징

K-Pop은 2000년대 후반부터 서구 전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전자 음악을 차용하고, 특정 장르가 아닌 여러 유행 음악 형식을 모두 수용하면서 정체성은 물론 장르의 구분까지도 모호하게 되었다. 이 같은 원인은 K-Pop이 세계진출을 목표로 하면서 일부 해외 전문가들의 악곡 참여와 영미 팝을 기반으로 구성된 K-Pop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K-Pop 댄스 뮤직은 대부분이 서구식 4/4박자를 채택하고 구절을 짧게 하며 비교적 빠른 속도(bpm 120-130)를 주로 사용해 왔다. 댄스 뮤직에서 4/4박자가 특정한 강세와 함께 비트(beat)가 빠르고 규칙적인 속도

일관된, 하지만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동학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을 요구하고 있다. "K-Pop의 글로벌 전략과 혼종정체성," 『음악응용연구』 4 (2011), 19-37. 이외에도 이종임, 『신한류와 문화이동의 지형학』 (논형, 2013) 등이 있다.

(tempo)로 진행될 때, 역동적이며 흥겨운 리듬이 된다. K-Pop은 주로 이런 리듬적 특징을 가진 훅송(hook song)과 그 음악에 맞춘 춤으로 시청자를 사로잡는다([악보 1-5] 참조).

훅송은 광고음악에서 주로 사용해 온 것으로 음악의 선율과 가사를 효과적으로 인식시키는 반복적 형태의 강조기법이다. 이런 훅송이 때로는 영어로, 노래와 랩 장르의 혼합을 수용하며, 동시 통합된 군무로 인기를 얻으면서 K-Pop의 가장 보편적인 형식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후렴구를 강조하는 그것의 극단성과 단순성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⁵⁾

K-Pop 댄스 뮤직에서 악구나 악절의 반복은 대개 후렴구에 존재한다. 이것은 보통 가사와 함께하는 선율 또는 리듬 형태로 존재하며 한 곡의 주요 모티프를 담는 역할을 한다. 이런 매력적인 반복 구절은 청자들이 쉽게 기억하고 강한 인상으로 남게 되어 극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실제로 K-Pop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각종 음원 순위 1위를 달성한 곡 중 많은 곡이 훅송을 사용했다.⁶⁾ 이런 초기 훅송의 대표적인 예는 <텔미>이며 최근의 예로는 <으르렁>을 들 수 있다.

댄스 뮤직에서 후킹 효과는 거의 필수적이라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양상이다. 댄스 뮤직의 경우 벌스(verse)/코러스(chorus) 형식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형식은 특히 후렴구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근 K-Pop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훅송은 전주나 간주, 후주에 후렴구의 화음진행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5) 최성민, “대중음악을 활용한 방송 프로그램의 서사 전략,” 『대중서사연구』 26 (2011), 36.

6) 훅송에서 후렴구의 짧은 선율과 가사의 반복은 다른 노래들과 비교했을 때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윈디걸스의 <노바디>는 64번, <텔미>는 50번, 소녀시대의 <Gee>는 53번 반복되며 카라의 <점핑>, 티아라의 <보핍보핍> 등의 경우도 후렴구가 수십 회 반복된다. 서정환, “대중음악의 훅(hook)에 관한 정의와 재해석,” 『음.악.학』 21 (2011), 117.

간접적으로 후렴구를 드러내기도 하고, I도, IV도, V도 중심의 화성(예: <텔미>와 <중독>, [악보 1, 4] 참조)을 빈번히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화음 진행과 곡의 형식은 분명히 훅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⁷⁾ <텔미>에 적용된 훅송의 선율과 리듬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1] <텔미> 후렴구

The musical score for the chorus of 'Tell Me' is presented in two staves. The top staff is for the vocal line (Vox.) in the key of F#m and 4/4 time. The melody consists of eighth and quarter notes. The lyrics are: 'Tell me tell tell me tell tell tell tell me'. The bottom staff is for the drum part (Dr.), featuring a Hi hat pattern of eighth notes and a Kick Drum pattern of quarter notes.

[악보 1]은 원더걸스의 첫 번째 정규 음반인 《The Wonder Years》(2007)의 표제곡, <텔미>의 후렴구이다. 이 곡은 4/4박자로서 선율 라인 대부분이 리듬의 강세(키 드럼과 비트)인 정박자에 맞추어져 있다. 선율의 변화는 리듬과 유사한 형태로 이어지며, ‘tell me’의 선율이 수십 회 반복한다.

K-Pop의 초기 훅송들이 주로 단순한 악곡에 기억하기 쉬운 가사를 반복하는 이런 형식을 취했다. 이런 곡들은 해당 곡의 가사나 리듬에 맞춘 춤 동작이 쉽고 재미있게 설계된 형식으로 대중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훅송의 일부 요소가 K-Pop 댄스 뮤직의 질과 다양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K-Pop은 훅송의 부정적인 요소와 지나친 댄스 뮤직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왔다.

7) 서정환, “대중음악의 훅(hook)에 관한 정의와 재해석,” 117.

그 결과 최근 흑송은 변화를 거듭하면서 댄스 뮤직에서 다양성을 표출하고 있다. 현재 K-Pop에 적용된 흑송은 일정한 형식 없이 모든 곳에 적용된다. 그리고 반복회수를 줄이며 초기의 단순성에서 벗어나 다소 복잡해지는 양상이다.⁸⁾ 아래 [악보 2]는 엑소(EXO)의 히트곡, <으르렁> (2013)의 후렴구 일부이다.

[악보 2] <으르렁> 후렴구

Vox. Bm Dm C
 나으르렁 으르렁 으르렁 대너 물러서지않으면 다쳐도물라

Dr.

<으르렁>은 주로 I (Bm)-III (Dm)-IV (Em_7)-V ($F\#_7$)-VII (A_7sus_4)의 조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선율 리듬이 네 마디 단위로 반복된다. 이 부분이 곡 전체에 후킹 효과를 주면서 후렴구의 반복회수를 줄이고 있다.

<으르렁>에 적용된 후킹 효과는 킥 드럼의 늘어진 엇박자와 함께 어우러진 사운드로 폭발적인 진동과 역동성을 청중에게 전달한다. 최근 이런 유형의 K-Pop 댄스 뮤직은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론가들에게도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8분음 연속 리듬에 더블 타임(2x)으로 맞춘 선율 때문에 악곡의 속도(bpm 90)가 상대적으로 느려졌다. 이런 형태는 3장에서 분석한 싸

8) 그룹 EXO <으르렁>의 경우, 후렴구의 반복회수는 36번으로 <텔미> 50회, <노바디> 64회, <지>(Gee) 53회 등에 비해 적다. 이것은 60초 미리 듣기에서 중독성 있는 반복 가사를 많이 듣게 하기 위함이며, 반복회수를 줄이는 것은 흑송의 극단적 단순함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의 <행오버>에도 같은 맥락으로 같은 종류의 리듬을 적용하고 있어, 앞으로의 추세를 예견할 수 있다.

2) 춤의 특징

K-Pop에서 안무는 혹과 반복된 동작으로 구성된 춤을 말하는 소위 ‘포인트 댄스’를 자주 포함한다. 두드러지고 쉽게 기억되는 주요 동작은 노래 가사와 리듬적 특성에 맞추게 되어 있다. 혹이 널리 사용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인데, 이는 기억하기 쉬운 후렴구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악보 3] 참조).

노래 가사와 연관된 동작은 팬들이 가사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고 그 춤의 뉘앙스를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 때문에 K-Pop 댄스 뮤직에서 ‘포인트 댄스’는 거의 정형화되고 있다.

춤은 가사의 의미를 모르는 외국 팬들조차 K-Pop 댄스 뮤직에 열광하게 하고, 그 원류가 된 한국문화에도 관심을 끌게 한다. 음악이 간접(지적) 감흥을 주는 요소라면, 춤은 직접(몸) 감흥을 전달하는 강렬한 움직임이다. ‘몸으로 느끼는 희열’, 이것이 세계인이 댄스 뮤직에 열광하는 이유이며, 댄스 뮤직이 K-Pop의 첨병 역할을 하는 이유이다.

최신 트렌드로 무장한, 모두에게 친숙하면서도 특이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K-Pop의 세계적 인기의 중심에는 관객과 일치된 교감으로 서로 소통하며, 즐거움과 흥겨움을 동반하는 ‘춤’이 있다. ‘춤’은 가수가 관중을 음악에 몰입시킬 수 있는 방식이며, 관중을 열광시키고 애호가를 양산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와 같은 예는 초기 혹송의 특징을 분명히 드러내는 <노바디>의 단순한 리듬과 그 리듬에 맞춘 의미 있는 춤 동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악보 3]은 강력한 후킹 효과와 ‘포인트 댄스’로 대중의 인기를 끌었던 원더걸스의 <노바디> (2008) 후렴구이다.

[악보 3] 〈노바디〉 후렴구

The musical score for the chorus of 'Nobody' is presented in 4/4 time. The vocal line (Vox.) is in treble clef with a key signature of three sharps (F#, C#, G#). The lyrics are: "no bo dy no bo dy but you I want". The drum part (Dr.) includes a 'Beat' and 'Kick Dr.' and features a consistent pattern of eighth notes with accents. The step dance part (Step) provides instructions: "one two three four lift up right foot five six(clap) seven eight(clap)".

이 곡은 ‘Nobody’라는 가사가 64회 반복되는데, 이 후렴구는 골수 팬 뿐만 아니라 일반시청자들도 그것의 가사뿐만 아니라 춤 동작까지도 기억할 정도로 각인된다. [악보 3]을 보면, 후렴구의 선율은 리듬패턴을 따라가고, 춤의 스텝과 손동작은 킥 드럼과 비트에 정확히 일치시켜 반복하고 있다. 단순한 패턴을 반복하는 이런 후킹 효과는 댄스 뮤직에서 강점을 발휘한다.

〈노바디〉는 지난 1960-70년대를 회상시키는 복고풍 개념으로 청소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에 걸쳐 인기를 얻었다. 이처럼 복고풍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K-Pop이 세대 편향적인 음악에서 탈피하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최근 K-Pop 댄스 뮤직은 초기와는 달리, 다소 복잡해지는 양상을 띠면서 다양해지고 있다. 그 좋은 사례로 엑소의 <중독>을 들 수 있다. <중독>은 팝과 R&B 그리고 힙합 장르와 전자 음악을 혼합한 서구 스타일의 댄스 뮤직이다. 댄스 뮤직의 연행에서 춤은 리듬과 불가분한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춤동작을 결정하는 주요소인 리듬과 댄스 뮤직에 관련된 주요소들을 고찰한다.

[악보 4] <중독> 후렴구

♩=82

Fm B♭m/D♭ C7 Fm

Vox. Some-one call the doc-tor 날 붙잡고 말해줘 사랑은 병 중독 □ O ver dose 시

Dr.

전술한 바와 같이, K-Pop 댄스 뮤직의 초기 단계에는 단순하면서 추진력 있는 리듬의 사용으로 악곡의 진행(bpm 120-130)이 지금보다 빠르고 단순했다([악보 1, 3, 5] 참조). 최근 엑소의 음악(<으르렁>, <중독>)에서는 초기의 것과 유사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리듬을 적용하여 속도에 변화를 주었다([악보 2, 4] 참조). 이런 댄스 뮤직에 적용된 리듬의 변화는 춤 동작뿐만 아니라 선율에도 영향을 미친다.⁹⁾

<중독>은 I(Fm)-IV(B♭m)-V7(C7)의 반복된 조성을 근간으로 생성된 선율과 전자 음향 효과로 어우러진 박진감 있는 춤 동작 때문에 빠른 곡처럼 느껴지지만, 비교적 느린 속도(bpm 82)로 진행된다. 이것은 8분음 연속리듬에 16분음(2x)과 엇박자에 맞춘 선율이 진행되고 춤 역시도, 그 리듬의 비트와 킥 드럼에 맞춘 동작이 적용되었기 때문인데, 이런 종류의 악곡들은 속도(bpm 80-90)가 비교적 느리다.

<중독>에서도, K-Pop의 이전 곡들처럼, 혹과 ‘포인트 댄스’를 강조한다. 이처럼 가사와 연관된 동작들로 구성된 ‘포인트 댄스’는 팬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K-Pop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다. 또, 리듬에서

9) 킥 드럼의 엇박자는 이미 오래전(1970년대)부터 펑키 등의 여러 리듬에 다양하게 적용해 왔다. K-Pop 댄스 뮤직 초기에 적용된 단순한 리듬과 엇박자를 적용한 현재 리듬의 변화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리듬에 적용된 이런 작은 차이가 음악에서 수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킥 드럼의 느린 엷박자(bpm 82)는 유연성을 강조하며 다양하고 빠른 동작들을 가능하게 한다.

<중독>에서 춤은 느린 8분음 연속으로 연결된 리듬에 강세가 있는 킥 드럼과 비트에 주요 동작(스텝과 손동작 등)을 맞춘다. 또, 강세 사이의 공간에서는 타악기 소리에 맞춘 동작과 가사에 맞춘 의미 있는 동작들이 완성도 높은 음악과 잘 어우러진 퍼포먼스를 연출한다.

음악과 연관된 이런 동작들은 청소년들을 춤에 대한 열망에 사로잡히게 하고, K-Pop에 빠져들게 한다. 춤은 내적 충동의 발산, 성적 표현 등으로 정의¹⁰⁾되기도 하며, 이런 자발적인 행위는 ‘놀이’로서 정의되기도 한다.

음악에서 춤은 개인의 기량과 서로 균형을 이룰 때, 대중에게 폭발적인 파급력을 가진다. 댄서가 몰입하면서 느끼는 쾌감이나 성취감 등을 ‘표현 이상의 즐거움’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K-Pop 댄스뮤직에서 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K-Pop 댄스 뮤직은 <중독>처럼,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음악과 <강남스타일>이나 <행오버>처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으로 세계 시장을 겨냥하며 다각화하고 있다. 그러나 편중된 인기와 개성 있는 음악가들의 부재는 정체성 확립과 더불어 K-Pop이 분명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K-Pop 댄스 뮤직은 대부분 서구 리듬을 차용한다. 이런 서구식 음악은 대중의 친화력은 높지만, 서구 음악이 주류이다. K-Pop은 그 음악의 유형과 형식을 모방하며, 그 음악의 변화를 따르거나 응용한다. 따라서 K-Pop의 변화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런 음악에서 의미 있는 정체성을 창출하기는 어렵다.

또 편곡 기법이나 믹싱 기술을 이용한 음향적 요인으로는 음악의 완

10) S. Pietrobruno, "Salsa and Its Transnational Moves," Ph.D. Dissertation (Mcgill University Montreal, 2001), 26에서 재인용.

성도는 다소 높일 수는 있을지라도, 변화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K-Pop 댄스 음악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K-Pop은 더욱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3) 거론된 쟁점: 정체성의 부재

K-Pop은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 확산을 위해 K-Pop의 정체성 결핍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¹¹⁾ 성과는 여전히 미흡하다.

K-Pop은 음악의 생산성과 질에 관해서도 심한 비판을 받고 있다.¹²⁾ 그것은 혹송에 가사를 맞춘 댄스 음악의 빠른 교체시기 때문에 가사의 의미나 전달보다는 차라리 소리와 오락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혹송은 K-Pop 댄스 음악에서 팬을 양산하는 매력적인 요소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의 지나친 사용으로 음악의 질과 다양화를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 비록 K-Pop의 현재 흐름은 이런 종류의 댄스 음악이 인기를 주도하고 있고 그 파급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혹송의 사용은 자체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또한, K-Pop이 국내에서 R&B나 발라드 등 여러 장르에서 대중의 인

11) 각주 4) 참조.

12) Tom Dixon, “서구음악 패턴의 복사와 표절, 모방적이며 깊이가 없는 개성, 자동보정(Auto tune)뿐만 아니라 반복된 노래 패턴과 구성방식(혹송)의 지나친 사용,” *The Journey of Cultural Globalization in Korean Pop Music*, http://www.e-ir.info/2011/08/17/the-journey-of-cultural-globalization-in-korean-pop-music/#_ftnref16 (2011. 8. 17); The New Yorker, “K-Pop은 기억하기 쉽지만 본뜬 것,” *Grown Men Creepily Moved by South Korean Girl Groups*, <http://nymag.com/thecut/2012/10/grown-men-moved-by-south-korean-girl-groups.html> (2012. 10. 1); K. Je-yup, “다작하는 음악 공장,” *K-pop grows on disposable ‘fast music,’* http://www.koreatimes.co.kr/www/news/biz/2012/02/123_100092.html (2011. 12. 4).

기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지나친 상업적 논리에 몰두하여 질 높은 다양화와 참신한 발상으로 팬을 확보하기보다는 시각적 요소에 치중하면서 선정성 문제와 그로 인한 음악 내용의 부실과 편중에 관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현재 K-Pop 댄스 뮤직은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서구식 음악’으로 세계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K-Pop에서 새롭게 창출해야 할 음악은, 비록 서구식 혼종 음악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한국 음악의 정체성을 표출해야 한다.

K-Pop이 댄스 뮤직 내에서도 각기 다른 독창성과 정체성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장르를 세분화하고, 세분된 모든 음악에 기존의 팝 지향적인 방법, 월드 뮤직화 하는 방법¹³⁾ 그리고 연주자들의 기량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연주 지향적인 접근 방법¹⁴⁾ 등 해당 음악의 특성에 맞게 다각적으로 응용·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K-Pop의 정체성

댄스 뮤직은 매혹적이며 재치 있는 동작 등과 연계된 박진감 있는 리듬과 사운드로 시청자를 춤에 대한 열망과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음악이다. 그 때문에 K-Pop 댄스 뮤직은 독특한 발상과 새로운 연출

13) 월드 뮤직은 대중음악 스타일로서 낯설어서는 안 되는 반면, 그것은 전통적이며, 공동으로 연주된 노래와 문화로 구성하는 춤과 음악이다. P. Manuel, *Popular Musics of the Non-Western Worl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89 참조.

14) 일렉트로닉스와 라틴 음악 등은 댄스 뮤직으로써 연주 위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쿠바는 일반 대중의 취향을 고려하여 댄스 뮤직을 감상 음악과 연주 음악으로 분리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이봉재, 『아프로 쿠바 음악』(예술, 2013), 308 참조.

방식을 고안하여 시청자들을 끊임없이 매료시키고 있다.

그러나 K-Pop의 주류들은 심오한 주제를 다루기도 하고 변화도 주고 있지만, 그 주제와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은 여전히 기존의 보편적 개념¹⁵⁾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K-Pop은 좀 더 분명하게 차별화된 음악과 개성 있는 캐릭터로 팬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독창적인 콘텐츠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K-Pop에 한국 (음악) 문화를 삽입하는 것도 기존의 음악과 분명히 차별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고 있다. 이런 방법을 시도한 예로는 싸이의 <강남스타일>(2012)과 <행오버>(2014)를 들 수 있다.

1) 차별화¹⁶⁾: 싸이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은 2014년 12월 4일 유튜브 조회 계수한계를 초과(21억 5천만 뷰)했다.¹⁷⁾ 한때 연령에 관계없이 세계적으로 호응을 받았던 그 음악의 인기가 지금까지도 해외에서 명맥이 유지하고 있는 <강남스타일>의 인기 요인과 악곡 구성 방법은 K-Pop 연구에 참고할 만하다. 따라서 <강남스타일>의 주요 요소들을 살펴본다.

아래 [악보 5]는 <강남스타일>의 선율 중 관중의 호응을 유도하는 합창 부분이다.

15) 춤과 무대 매너, 감각적인 패션과 스타일 등으로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미국과 서구의 대중음악 최신 트렌드를 빠르게 흡수하여 혼합하는 것 등.

16) 여기서의 차별화는 세계 대중음악들과 K-Pop 사이에 뚜렷한 차별을 두고, 그 음악의 개성을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더 많은 애호가를 확보하려는 차별화 전략이다. 『Fashion전문 자료사전』(한국사전연구사, 1997). “차별화,” <http://dic.search.naver.com> 참조.

17) A. Moscaritolo, “The ‘Gangnam Style’ music video is so popular, it broke YouTube,” <http://www.pcmag.com/article2/0,2817,2473091,00.asp> (2014. 12. 4). 각주 1) 참조.

[악보 5] <강남스타일>¹⁸⁾

♩=120

Vox. Verse

너 hey(합창) 그 래 바 로 너 hey(합창) 지 금

8분 음 연속 리듬

Dr. Kick drum

Step one two three four

K-Pop 댄스 뮤직의 초기 곡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K-Pop의 리듬은 마디마다 8분 음 연속 리듬에 엇박자가 없이 분할된 4번의 킥 드럼이 강박을 연주하기 때문에 단순하면서도 춤추기 쉽다. 음악에서 비트가 스텝(step)을 결정하므로 리듬이 춤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된다. 킥 드럼 소리는 인간의 심장박동(이하 심박) 소리와 같아서 심박이 속도의 기준이 된다.

<강남스타일>은 bpm 120 속도에 맞춘 킥 드럼이 추진력 있는 리듬으로 반복된다. 인체 내에서 주요 리듬은 심혈관 체제에 의해 정해진다. 인간의 심박은 분당 약 60-80번 혹은 그 이상이다. 폐는 공기를 내뿜는데 그 속도가 심박의 약 1/4이다. 0.5초 주기의 킥 드럼 수를 계산하면, 120회/분(min)이 되어 춤추기 좋은 속도가 된다. 발동작은 킥 드럼 소리에 따라 강박에 스텝을 맞추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다.

<강남스타일>의 킥 드럼과 비트는 상당한 추진력¹⁹⁾을 창출한다. 그 음악의 여음구(음, 음, 등)에 맞춘 동작들은 다양한 의미(섹시, 코믹 등)를 지닌다. 분위기를 돋우는 백 코러스와 청중을 악곡에 합류시키는 합

18) 이봉재, “K-Pop의 춤에 관한 소고: 강남스타일을 생각하며,” 『대중음악』 10 (2012), 90에서 본 연구자의 글 일부를 인용했음을 밝힌다.

19) 엇박자가 없는 킥 드럼 1번과 3번 박자의 강세가 2번과 4번 박자의 강력한 비트로 강세가 규칙적이며 빠른 속도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창은 청중을 절정으로 몰아간다.

[악보 5]와 같이, 단순화된 리듬, 춤추기 좋은 속도, 그 리듬에 맞춘 쉽고 재미있는 동작, 집단 흥분을 유도하는 군무와 합창 등 <강남스타일>이 보여준 음악의 호응도에서는 대중의 선호는 음악의 유형이 아니라 음악의 스타일²⁰⁾이 결정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강남스타일>의 가사는 랩(rap)이 대부분이다. 랩은 운율(rhyme)에 래퍼의 감정을 실어 표현(flow)하는 언어유희이다. 리듬을 타며 말하는 거친 표현과 몸동작은 주체할 수 없이 분출하는 성장기의 반항적 기질을 가진 청소년들의 정서와 잘 맞는다. 그래서 세계 대중음악의 많은 곡처럼, K-Pop에서도 랩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강남스타일>은 랩 위주로 진행된 악곡 구성 때문에 선율이 [악보 4]의 두 마디를 포함한 4마디가 두 번 반복하는 것으로 지극히 단순하다. 그 음악에 사용된 가사와 노래 제목 그리고 춤동작 등에서 나타난 한국적 요소들은 외국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²¹⁾

<강남스타일>이 보여준 차별화된 요소들(단순화된 리듬, 그 리듬에 맞춘 쉽고 재미있는 동작, 한국적 요소, 집단 흥분을 유도하는 군무와 합창 등의 적절한 활용)은 전 세계적으로도 수용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이처럼 대중음악은 그 음악이 가진 상업성 때문에 오락적 요소와는 불가분한 관계를 가진다.²²⁾

그러나 이런 요소들은, 댄스 뮤직 열풍을 몰고 온 대부분 곡처럼, 일회성에 그친다. 또, 이와 유사한 음악 요소의 적용은 학습효과로 인해

20) 이 글에서 유형은 ‘음악의 장르’를 뜻하며, 스타일은 음악이 ‘연주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21) A. Moscaritolo, “the sick beat and memorable dancing, especially that horse-like gesture-made it a viral sensation,” <http://www.pcmag.com/article2/0,2817,2473091,00.asp> (2014. 12. 4).

22) 이퇴, “한국문화 노출 및 개인적 자원이 몰입 및 K-Pop 선호도와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2012).

흥미는 반감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소들은 K-Pop 연구에서는 단지 참고 사항일 뿐이다.

기존 음악과 차별화하는 것은 대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독창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특한 발상이 적용된 위와 같은 요소들을 깊이 연구하여 더욱 질 높은 음악으로 K-Pop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2) 혼종화²³⁾: 싸이 〈행오버〉

<강남스타일>의 음악 개념은 기존의 아이돌 음악과는 차별화한 것으로 그 음악에 적용된 독특한 음악 요소들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대중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런 요소들은 독창적인 음악콘텐츠로 소통에는 문제가 없지만, 모호한 정체성에 대한 논란은 피할 수 없다. K-Pop의 정체성에 대한 일방적인 강조는 한국음악에 대한 국외 팬들의 몰이해와 거부감으로 인해 외면당할 수 있다.

한국 음악 요소(선율과 악기 등)를 서구 리듬에 적용하는 지금까지의 시도는 세계인에게 낯선 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법으로는 소극적이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K-Pop은 현재 수많은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결국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최근 발표된 싸이의 <행오버> (2014)에서 이런 시도는 찾아볼 수 있다. <행오버>는 한국의 음악 요소(팽과리, 태평소 등)를 짧게 삽입하여 낯선 음악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반복함으로써 해외 팬들을 적응시

23) 혼종성이란 “인종과 문화의 이질적인 요소들이 혼합된 일반적인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 글에서 혼종화는 한국 전통음악이 서구 음악에 동화(同和)되어 혼합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혼종화,” <http://dic.search.naver.com> 참조.

키고 있다.

아래 [악보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오버>에 삽입된 팽과리의 소리 패턴은 서구 리듬에 맞춰져 있다. 이런 서구 리듬과 한국 소리의 조화는 정체성을 표현하기 쉽고, 악곡에 적용하기도 쉽지만 새로운 방법은 아니다.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적용해 온 방법으로 익숙하지만, 한국의 정서를 담은 서구식 음악으로 간주하여 여전히 정체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킨다. 이런 <행오버>에 삽입된 리듬과 팽과리의 소리 패턴을 악보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6) <행오버>의 리듬과 팽과리의 소리 패턴

[악보 6]에서 보이는 16분음 연속으로 이루어진 팽과리의 소리는 킥 드럼과 비트에 강박을 일치시키고 하이햇의 8분음 연속 리듬에 맞게 더블타임(2x)으로 연주한 것이다. 악보에 기보 되지 않았지만, 색소폰의 소리(ad-lib) 역시 팽과리 소리와 일치하는데 이것 또한, 리듬에 선율을 맞추기 때문이다.

이처럼 리듬은 선율에 의해 패턴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선율 생성의 주요 요소로도 작용한다. 따라서 기존의 서구 리듬으로 구성되는 K-Pop은 음악가들의 각기 다른 음악적 기반이나 독특한 발상을 이용하여 기존의 K-Pop과는 차별화된 음악으로 독창성을 창출해야 한다.²⁴⁾

24) 독창적 창법과 형식 등의 개발, 그 음악 형식과 창법에 맞춘 독특한 춤동작과 몸짓 등의 시각적 요소 활용 등.

K-Pop에서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복잡한 한국의 전통리듬을 단순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한국의 전통음악 요소(선율과 악기)를, <행오버>처럼, 주로 4/4박자 스타일의 서구식 리듬에 선율을 맞춰 왔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 전통 음악에서 수시로 변화하는 박자체계와 이질적인 악기들로 구성된 복합리듬²⁵⁾을 현대화(4/4)하고 단순화(단일 리듬)하여 그 리듬에 맞춘 선율을 생성하면 독창적이며 정체성 있는 새로운 음악이 창출될 것으로 본다.

3) 정체성²⁶⁾: 한국 리듬의 현대화 <사물놀이>

한국 전통음악을 창조적으로 계승한 <사물놀이>는 다층 구조를 이룬 4개의 리듬과 다양한 박자들(5/8, 6/8, 10/8, 12/8, 4/4 박자 등)로 구성된다. 사물놀이는 이런 리듬과 박자들로 전개되는 점진적 가속의 틀과 긴장과 이완의 원리 그리고 음양 조화의 원리²⁷⁾로 흥겨운 음악을 생산한다.

이런 음악에 적용된 복합리듬을 현대화하고 단순화하는 작업은 정체성과 대중성을 함께 창출해 내기 위함이다. <사물놀이>에 적용된 다양한 박자들의 특성과 서구 악기와의 조화는 먼저 이론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제 연주로 확인하는 끊임없는 시도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한다.

아래에 제시된 방법은 <사물놀이>의 모든 박자에 적용할 수 있다. 그

25) 주술적 기능을 가진 음악들은 매우 다른 문화를 가진 음악들(아프리카 등)과 그 기능과 방법이 현저히 닮았다. 그러나 각 나라의 음악적 특색은 분명히 구별된다. M, Harner, *The Way of the Shaman*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 1990), xvii 참조.

26) 여기서 정체성은 한국 음악의 본질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타인과 자신을 구분 지어주는 것이다.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정체성.” <http://dic.search.naver.com> 참조.

27) 김두익, 『풍물굿 연구』 (지식산업사, 2010), 137.

럼에도, 이론으로써 ‘길군악 7채’를 예로 든 이유는 ‘길군악 7채’에 적용된 리듬들(5/8, 6/8박자)이 4/4박자와 호환하기 쉽고 설명하기도 쉽지만, 무엇보다도 리듬의 형태가 대중화하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²⁸⁾

아래 [악보 7]은 복합 리듬을 나타내는 <사물놀이> 길군악 7채 악보 일부이다.

[악보 7] 길군악 7채²⁹⁾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four staves. The top staff is labeled '괘과리' (Gyeonggari), the second '징' (Jing), the third '장구' (Janggu), and the fourth '북' (Buk). The time signature starts at 5/8, changes to 6/8 in the second measure, and returns to 5/8 in the third measure. The notation shows rhythmic patterns for each instrument, with some notes marked with accents or slurs.

혼종화의 과정에서 복잡하고 서로 호환되기 어려운 부분은 자연스럽게 탈락되거나 제거하여 단순화하는 것처럼, 사물놀이에 적용되는 다양한 박자 중에서 박자를 일부 생략하거나 추가하면, 6/8, 4/4 또는 2/4 박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박자들은 4/4 박자로 전환하거나 호환할 수 있다. 또, 리듬의 변화를 최소화하거나 최대화할 수도 있다.

28) ‘길군악 7채’에 적용된 리듬들은 4/4 박자로의 전환과 호환뿐만 아니라 장식음이 없는 리듬 패턴이 서구식 리듬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 서구식 리듬과 쉽게 혼합할 수 있다. 12/8 박자에 적용된 마당 삼채나 빠른 삼채 또는 느린 삼채와 길군악 신호 장단 등에 적용된 장식음들의 오묘한 뉘앙스를 대중음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통 리듬을 현대화한 대표적인 리듬들(송고, 보사노바 등)처럼 전통 리듬의 핵심요소(예: 클라베의 봄보)와 서구의 보통 박자(common time, 4/4)를 결합하여 단순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29) 김두익, 『풍물굿 연구』, 133 악보 참조.

박자를 추가 또는 전환하여 4/4박자로 만들 경우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아래 [악보 8]의 4/4 박자(A)에 표시된 V는 추가한 박자를 표시한 것이며 6/8 박자(B)는 직접 4/4박자로 전환한 예이다.

[악보 8] 박자의 전환과 호환

Part A: 5/8 time signature, instruments: 팽과리, 북, 장구. The notation shows a sequence of notes in 5/8 time, followed by a double bar line and a switch to 4/4 time. Two 'V' marks are placed above the notes in 4/4 time, indicating where beats were added to convert from 5/8 to 4/4.

Part B: 6/8 time signature, instruments: 팽과리, 북, 장구. The notation shows a sequence of notes in 6/8 time, followed by a double bar line and a switch to 4/4 time. Triplet markings (3) are placed above groups of notes in the 4/4 section, indicating a direct conversion from 6/8 to 4/4.

사물놀이에서 금속성 악기(징과 팽과리)와 드럼(북과 장구)으로 구성된 다중리듬을 단순화하기 위해서는 단일 리듬으로 전환해야 한다. [악보 8]에서 5/8 박자(A)와 6/8 박자(B)의 윗줄 부분, 즉 팽과리와 드럼은 4/4 박자의 윗줄 부분에서는 금속성 악기(cymbals)와 북의 강세(beat)로 조합한다. 아래 줄(징)은 심벌즈와 킥 드럼으로 조합한다. 이때 호환되기 어려운 부분이나 복잡한 부분을 제거하거나, [악보 8]의 A처럼 박자가 부족한 경우 추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아래 [악보 9]는 첫 번째 마디(5/8 박자)인 다중리듬 A에 박자를 추가(V)하여 단일 리듬 B(4/4 박자)로 전환한 예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악보 9] A의 첫 번째 박자, 징은 [악보 9] B에서는 킥 드럼과 심벌로, 팽과리, 북, 장구가 모두 결합된 2-3번 박자 중 두 번째 박자는 강세(비트)로 나타낸다. 세 번째 박자는 강세가 약한 심벌과 킥 드럼으로 결합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구식 4/4 박자 리듬 형태의 일부를 도입하여 단일 리듬으로 구성한 예이다.

[악보 9] 복합 리듬의 단일화

A
쟁과리, 북, 장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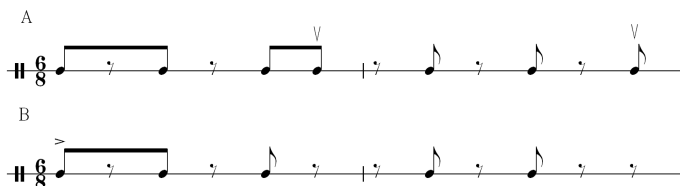
B

[악보 9] B의 리듬은 실험적이며 설명을 위한 본보기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예는 외국 음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래에 제시된 음악은 자국의 전통리듬을 응용하여 서구 악기로 단일화하고 4/4 박자를 바탕으로 선율을 생성한다. 이런 변화의 목적은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자국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새로운 음악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다.

중남미, 특히 쿠바 음악의 전통 리듬은 12/8 또는 6/8 박자에서 박자가 제거되어 2/4 박자로 변화하고 다시 4/4 박자가 되었다. 박자를 제거한 쿠바 전통 리듬 클라베(Clave)³⁰⁾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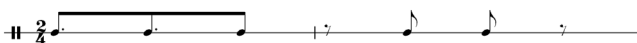
30) 쿠바 대중음악의 기본 개념인 손 클라베(3-2)는 3음절로 된 첫 번째 마디를 쓰리 사이드(three side), 2음절로 된 두 번째 마디를 투 사이드(two side)라고 한다. (3-2) 클라베는 쓰리 사이드의 두 번째 엇박자인 ‘봄보’(bombo)가 강조되면서 긴장감이 조성하고 세 번째 정박자인 ‘폰체’(ponche)가 긴장을 완화한다. 그리고 다음 마디의 투 사이드로 오면서 두 번의 정박자가 긴장을 이완시키는 두 마디 속 긴장과 이완의 연속된 대립 구도를 하고 있다. 이 리듬에 의해 선율이 생성되고 음악이 진행되며, 춤 동작이 유도된다. 전통음악에 사용되는 룸바 클라베는 쓰리 사이드인 폰체가 ‘엇박자’로 된 것 외는 기능이 모두 손 클라베와 같다. 이처럼 쿠바 음악에서 클라베는 대중음악에 적용하는 손 클라베와 전통음악에 적용하는 룸바 클라베 두 종류가 있다.

[악보 10] 6/8 박자 (3-2) 손(Son) 클라베 리듬의 변화



[악보 10]의 B는 6/8 클라베 리듬의 첫 마디와 둘째 마디의 마지막 박자를 제거한 것이다. A 리듬에 있는 √ 표시는 음이 제거될 부분을 표시한 것이며, 아래 B 리듬은 제거된 후의 악보이다. √ 부분은 바로 앞 박자의 강세 때문에 강세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면서 생략되었다.

[악보 11] 2/4 박자 (3-2) 손 클라베



6/8 박자에서 생략된 박자가 재차 수정되면서 2/4 박자로 변하게 되었다.

[악보 12] 4/4 박자 (3-2) 손 클라베



클라베 리듬은 2/4 박자에서 오늘날 4/4 박자로 표기가 변화되었다. 클라베 리듬은 다양한 복합 리듬과 함께 연주된다. 그중에서 송고(Songo) 리듬과 모잠비크(Mozambique)³¹⁾는 전통음악에 사용되는 롬바 클라베³²⁾와 복합 리듬을 응용한 서구식 단일 리듬(드럼 세트)으로 개발

31) 모잠비크는 아프리카 쿠바와 아프리카 전통 리듬(Abakwa, Yoruba, Congo 등)을 혼합한 현대식 단일 리듬이며, 페드로 이즈쿠에르도(P. Iaquiedo)에 의해 개발되었다. M. Berry & J. Gianni, *The Drummer's Bible* (Tucson, Seesharp, 2004), 19.

하여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³³⁾

송고 리듬의 탄생 과정을 살펴보면, 전통리듬(와완코(Guaguancó), 모잠비크 등)³⁴⁾의 앞 또는 뒤의 강세에 의해 상대적으로 약화된 부분을 모두 제거한 후, 금속성 악기(timbales, bongo bell)는 드럼 세트의 심벌즈로 대체하고 클라베의 봄보(bombo) 음과 북의 주요부분(강세와 연결음)만으로 송고 리듬을 창조했다.

이 같은 방법은 사물놀이의 복합 리듬을 단순화하는 데 참고할 만하다. 아래 [악보 13] A는 쿠바 전통 타악기로 구성된 송고의 복합 리듬이며 B는 서구식으로 단순화한 송고의 기본 리듬을 차례로 기보한 것이다.

32) 룸바 클라베와 손 클라베의 차이는 3음절(쓰리 사이드) 마디의 마지막 박자가 첫 박자로 된 것이다([악보 13] 참조).

33) 송고 리듬은 펑크, 록 같은 서구 음악의 영향과 모잠비크와 와완코에서 유래된 쿠바 전통리듬인 맘보와 룸바의 혼합으로 이루어졌다. 이 리듬은 쿠바의 타악기 주자, 호세 “창퀴토” 키타나(J. “Changuito” Quintana)에 의해 드럼 세트로 개발되었다. J. Castellano, *Drummers Collective* (New York: Carl Fisher, 2002), 27.

34) 와완코는 룸바의 3가지(암부, 와완코, 콜롬비아) 중 하나이다.

[악보 13] 송고의 다중리듬 A와 단일 리듬 B³⁵⁾

A

B

[악보 13]의 B는 클라베의 변형이다. (2-3) 룸바 클라베 리듬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전통적으로는 첫 번째 마디의 정박자로 긴장을 이완하고 두 번째 마디는 엇박자(bombo)로 긴장을 유도해야 함에도, 첫 번째 마디의 두 번째 강세(beat)로 정박자를 강조할 뿐 나머지 부분은 모두 엇박자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엇박자의 강조는 송고 음악을 더욱 강력한 댄스 뮤직으로 변모시켰다.

송고는 전통 리듬이 아니다. 전통 리듬의 형식을 응용한 현대식 리듬이다. 그럼에도, 송고는 여전히 전통 리듬, 클라베의 영향을 받는다. 클라베는 선율 생성과 춤, 그리고 각 악기의 리듬패턴과 악곡 연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쿠바 음악의 근간이며, 정체성을 대변한다.³⁶⁾

사물놀이의 리듬 또한, 한국 음악의 정체성을 대변한다. 한국 음악이

35) J. Castellano, *Drummers Collective*, 27, 악보 참조. 클라베는 (3-2)를 (2-3)으로 순서를 바꾸기도 한다. 이것을 리버스 클라베(reverse clave)라고 하며, 역순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36) 이봉재, 『아프로 쿠바 음악』 149에서 재인용.

세계인들에게 음악적으로, 문화적으로 낯설지 않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전통 리듬의 현대화와 단일 리듬으로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체성을 가진 한국 전통 리듬을 대중음악에서 활용하는 것은 새로운 음악을 기대하는 세계인의 관심을 끌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K-Pop에서 독창성은 정체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유연하고, 다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K-Pop에서 독창성은 <강남스타일>처럼, 서구식 음악으로도 개성 있는 음악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행오버>처럼, 서구 리듬에 전통 음악 요소(악기 등)를 혼합하여 정체성을 나타내거나, 현대화된 전통 리듬을 활용하여 정체성을 강조할 수도 있다. 이런 개성 있는 음악을 창출함으로써 K-Pop의 장르는 다양화될 수 있다.

3장 3절에 제시된 기술적인 요소들은 적용 방법에 따라 음악의 장르나 스타일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 한국 전통음악의 리듬은 K-Pop에서 정체성을 창출할 개성 있는 음악 콘텐츠로 활용가치가 높은 중요한 음악 재료이다. 따라서 K-Pop에서 정체성 있는 음악콘텐츠의 생산은 기술적 요소의 개발과 함께 개발된 기술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창의적 발상에 달려 있다.

4. 결론

현재 K-Pop에는 청소년 취향³⁷⁾을 우선 고려한 음악들이 주류를 이룬다. 이런 판단은 국내의 열악한 시장구조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철저히 계산된 전략일 수 있다. 시각적 요소와 선정성 등을 내세운 기업의

37) 최진숙, “중학생의 음악적 취향과 학교 음악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김일주, “음악에 대한 인식도와 음악 취향에 관한 조사연구: 광주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33.

지나친 상업적 논리에 지배된 K-Pop은 내용의 부실을 초래하여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K-Pop이 개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독창성과 한국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음악으로 변화해야 하는 것은 한 시대를 풍미하는 문화현상을 넘어 독창적인 음악 장르로써 세계 대중음악들과 경쟁하며 문화적 역량을 과시하기 위함이다. 그것은 경제로 환산하는 K-Pop의 상업적 가치보다 경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체성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K-Pop이 한국 리듬을 현대(단순)화하고 그 리듬을 서구 음악에 적용한다면, 세계인에게 친숙하면서도 K-Pop만이 가질 수 있는 독창성 또는 정체성 있는 새로운 음악과 춤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K-Pop은 전통 리듬의 현대화와 응용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K-Pop이 대중의 의식을 수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중의 의식을 이끄는 진정한 세계화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황에 대응한 음악가들의 창의적인 음악 재료의 선택과 혼합형(hybrid) 음악의 최대 장점을 살리는 현명한 문화의 통합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K-Pop은 한국을 대변하는 독창적인 음악을 창출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두익. 『풍물굿 연구』. 지식산업사, 2010.
- 김일주. “음악에 대한 인식도와 음악 취향에 관한 조사연구: 광주지역 고등 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 김현주. “청소년의 대중음악 수용방식: 능동적 수용자.” 『사회과학연구』 13 (2001), 93-122.
- 서정환. “대중음악의 훅(hook)에 관한 정의와 재해석.” 『음.악.학』 21 (2011), 105-133.
- 사이먼 프리스 / 권영성·김공수 옮김. 『록 음악의 사회학: 사운드의 힘』. 한나래, 1995.
- 이대호. 『사물놀이 기초 교본』. 다라, 1990.
- 이봉재. 『아프로 쿠바 음악』. 예술, 2012.
- _____. “K-Pop의 춤에 관한 소고: 강남스타일을 생각하며,” 『대중음악』 10 (2012), 77-97.
- 이현진. “K-Pop의 성장 지속화 방안: 가수 사이의 성공요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세종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대학원, 2014.
- 최성민. “대중음악을 활용한 방송 프로그램의 서사 전략.” 『대중서사연구』 26 (2011), 337-364.
- 최진숙. “중학생의 음악적 취향과 학교 음악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 하위징아, 요한 / 이종인 옮김. 『호모 루덴스(놀이하는 인간)』. 연암서가, 2010.
- Berry, Mick and Jason Gianni. *The Drummer's Bible*. Tucson, Seesharp, 2004.
- Castellano, J. *Drummers Collective*. New York: Carl Fisher, 2002.
- Cho Hae-Joang. “Reading the ‘Korean Wave’ as a Sign of Gloval Shift.”

Korean Journal 45/4 (Winter, 2005), 147-182.

Fernandez, Raul, A. *From Afro-Cuban rhythms to Latin Jazz*. New York: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6.

Harner, Micheal. *The Way of the Shaman*.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 1990.

Manuel, Peter. *Popular Musics of the Non-Western Worl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Mauleon, Rebeca. *Salsa Guide Book for Piano & Essemble*. Sher Music Co., 1993.

Mikey, Hart. *Drumming at the Edge of Magic*.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1990.

Pietrobruno, Sheenagh. "Salsa and its Transnational Moves," Ph.D. Dissertation, Mcgill University Montreal, 2001.

Abstract**A Study for Identity of K-Pop Dance Musics:
Focusing on the Rhythms of K-Pop**

Lee Bong Jae

K-Pop is receiving the spotlight by making a meteoric rise as a leader of the Korean Wave all over the world. K-Pop is spreading to various countries via various social networking services such as YouTube, Facebook, Twitter. And the world consumers are fascinated by catchy tunes, singer's style, group dance and fancy performance.

In 2012, Korean rapper Psy's 'Kangnam Style' records more than a billion hits on Youtube, the 2nd highest ever and became a flare of globalization of K-Pop. In addition to the national brand image of Korea, 'K-Pop fever' makes developmental opportunities throughout industries and raise many economical effects. So it shows that the ripple effect of popular culture largely influence on economic and living, moreover, the excellence of popular culture is proportional to competitiveness.

The recent success of K-Pop is the fruit of Korean entertainment companies and music industry's relentless efforts during the past one decades. however, because of problems resulted from poor structure of K-Pop market and the lack of diversified contents, the future of K-Pop fever is not positive.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and the diversification of the K-Pop contents, This study tries to explore the famous musics of latin and african style as well as K-Pop style.

Expending the audience by appealing to a wider, more varied range of listeners sometimes requires retreats as well as advances. Fernandez says "performances always demand stylization, which works fine line: it always

must distort, but only so long as the distortion does not become a caricature.” We should bear it in mind that the challenge for practitioners of K-Pop is to make today’s distortion tomorrow’s authentic tradition.

Keywords: K-Pop, dance music, creativity, hybridity, identity, rhythm

투고일	심사일	게재 확정일
2014년 10월 23일	2014년 11월 4일~23일	2014년 12월 1일